당시 언어로 읽는 만해 스님 글



교감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
만해아카이브연구소 펴냄
학연문화사 / 전집 45만원



불교적으로 본 만해 한용운
서윤길 지음
학연문화사
3만원

만해아카이브연구소 원전 영인
5년간 자료 모아 10권 '전집' 출간
2029년 목표 현대어 번역 추진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님의 침묵〉 간행 10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저술을 원전 중심으로 집대성한 〈교감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전 10권)가 출간됐다.

만해아카이브연구소(대표 이창경, 이하 연구소)는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저술 초간본과 최초 발표 지면을 10권의 책으로 묶었다.

만해 스님이 활동한 1900년대 초반은 순한문·현토문·국한문혼용문· 한글문이 함께 쓰였고, 활판 인쇄와 편집 관행, 일제강점기 검열과 출판 조건이 텍스트에 영향을 주던 시기였다. 때문에 흩어져 있던 저술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간본 등을 후대 판본과 대조해 '만해 스님이 실제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하는 데 방점을 뒀다. 자료 조사부터 편찬까지 5년이 걸린 이유다.

전서 출간에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를 간행위원장으로 정우 스님, 김진병 소장과 전보삼, 신승운, 홍사성, 김광식, 이창경 위원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서윤길 교수의 제자인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회장이 전서 제작에 힘을 보탰다.

책에는 대표 저술인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십현담주해〉 〈님의 침묵〉을 비롯해 시·시조·한시, 잡지와 신문 기고, 〈흑풍〉 〈박명〉 〈삼국지〉 등 연재 소설까지 수록했다.

'별책'에는 90여 페이지에 이르는 '생애 연보'와 책 광고와 사진 등 희귀 자료를 담았다. 또 지금까지 출간된 만해 스님 관련 160여 종의 단행본,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 1000여 편의 목록, 학술대회 발표문과 언론·출판 매체의 만해론까지 관련 자료를 망라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만해 스님 묘역에서 봉행된 고유제에서 이창경 대표는 "오랜 세월 선사의 말씀은 책 속에, 신문과 잡지의 지면에, 때로는 빛바랜 한 장의 문서에 흩어져 있었다"며 "우리는 선사께서 처음 쓰고 세상에 내놓으셨던 그 말씀의 본디 모습을 되찾고자 했다"고 전서 발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당시의 언어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그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20일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만해 스님 묘역에서 봉행된 〈교감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 출간 고유제 모습. 사진 제공=만해아카이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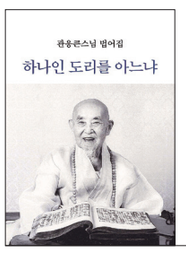
이를 위해 연구소는 만해 스님 탄신 150주년인 2029년을 목표로 현대어 번역본 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병 만해아카이브연구소장은 "교감영인 전서가 흩어진 원전을 찾아 바로잡고 '당시의 언어'로 만해를 다시 만나는 작업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현대어 번역 전서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한편, 서윤길 교수는 전서와 별도로 〈불교적으로 본 만해 한용운〉(학연문화사)이라는 단행본도 출간했다.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라는 다면적인 삶과 사상을 '불교'라는 프리즘으로 읽어낸 책이다.

서 교수는 "만해의 독립운동 정신은 개인을 깨치는 일에서부터 나라 되찾는 일, 일체중생을 해탈케 하고 무명에 훈습된 진여 불성을 회복케 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의미"라며 "이 책은 만해가 정리한 불교 수행 체계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 대역사의 과정을 밝혀보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모두가 부처의 덕상 지닌 참생명"

〈德相〉



하나인 도리를 아느냐
관응 스님 법문
김현준 엮음
효림출판사
1만원

전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
'참생명' 가르침 담은 법문집

"중생들 모두는 하나의 참생명인 부처의 그윽한 덕상(德相)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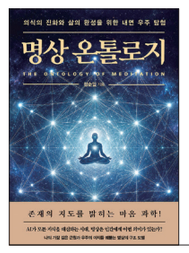
효림출판사가 펴내는 '큰스님 법문집' 시리즈로, 월간 '법공양'에 게재된 전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1910~2004)의 법문을 모은 책이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법의 핵심인 '참생명'이 무엇인지, 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또한 "'나'를 내려놓고 슬기롭게 배우는 것이 참된 구도요 보살도의 시작"이라며 "수행법 중 한 가지를 택해 정성껏 부지런히 행하며 틀림없이 하나인 도리를 깨달아 평화롭고 멋진 삶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관응 스님은 19세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해 금강산 유점사 강원을 수료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일본 용곡대학을 졸업했다. 월정사·동화사 강사를 지냈고 조계사·용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1957년 직지사 조실, 1981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다. 1982년 직지사에 황악불교전문학림을 개설해 전강 제자 10명을 배출했으며, 1984년부터는 직지사 중암에 주석하며 후학을 제접했다. 1987년 조계종 제1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04년 세수 95세, 법랍 76세로 원적에 들었다.

관응문도회는 "불교를 오래 공부한 분에게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고,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이 낯설지 않게 다가가는 작은 문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여수령 기자

흩어진 수행 조각을 하나의 지도로 그리다



명상 온톨로지
정순일 지음
운주사
4만3000원

철학에서 '온톨로지(Ontology)'는 존재의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존재론'을 뜻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흩어진 정보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전체적인 의미 구조를 만드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저자는 이 개념을 명상에 적용했다. 불교를 비롯해 여러 수행 전통과 심리학, 뇌과학, 물리학 등에 흩어져 있던 '명상'에 대한 생각과 수행법을 하나로 연결해 '명상의 전체 지도'를 그려낸 것이다.

정순일 원광대 명예교수는 그간의 연구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의 기본을 '사띠(깨어있음)'와 '사마디(집중)'에서 찾는다. 그리고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몸과 마음, 의식, 나아가 우주와 존재의 구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명상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술을 넘어 존재론적 탐구로 확장된다. 저자는 이를 통해 명상하는 인간인 '호모 메디탄스(Homo Meditans)'의 개념을 정립한다.

명상 원리 · 수행 체계 통섭적 재구성
'창발 · 환원 · 현현명상'으로 생활선 모색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가 체계화한 창발명상(創發冥想)·환원명상(還元冥想)·현현명상(顯現冥想)이다.

저자에 따르면, 자애와 연민을 바탕으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창발명상이 '채움(지복)의 길'이라면, 일상에서 집착과 에고를 내려놓고 순수의식을 회복하는 환원명상은 '비움(해탈)의 길'이다. 그리고 채움과 비움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현현명상'이 시작된다고 본다. 이 단계에 이르면 명상은 밥 먹고 걷고 일하는 삶 자체가 되고, 개인적인 깨달음이 다시 세상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 순환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 불교의 우주관과 수행체계를 현대 과학의 시각과 연결한다. 불교의 삼계(三界)와 현대 물리학의 우주론을 함께 살펴보고, 구차제정과 대승 십지 수행, 신체 에너지와 차크라 등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또 몸과 마음을 하나로 간주하는 '보마인드(Bomind) 철학'을 제안하며, 명상이 몸과 의식, 에너지가 함께 변화하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나아가 뇌과학과 양자물리학 등 첨단 과학을 접목해 명상의 신비주의적 베일을 벗겨내고, 일상에서 완성하는 '생활선(生活禪)'을 제시한다.

특정 명상 전통의 울타리를 넘어 '보편 영성'을 지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AI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정신혁명'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AI가 모든 지식과 답을 제공하더라도 '순수하게 존재하는 의식'과 '내면의 신비한 에너지'는 결코 흉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명상을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의 창발과 환원의 리듬에 공명하여, 삶에서 지극한 행복을 꽃피우고 참다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내면의 연금술", "내면의 의식과 에너지가 주도하는 삶을 지향하며 삶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는 문명의 마지막 구원투수"라고 설명한다.

책 말미에는 미주와 찾아보기를 수록해 학술적 깊이를 높였으며, 각 장의 끝마다 저자의 시를 실어 사유의 여백을 더한 점도 눈길을 끈다.

파편화된 명상 이론과 수행법을 하나의 지도로 그려낸 저자는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아름답게 '창발'하고, 영원한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환원' 중이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잠시 멈춰 내면을 응시할 때, 행복과 해탈의 문은 언제나 소리 없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배희정 기자

